

노벨화학상 뷔트리히 박사 연세대 초청강연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쿠르트 뷔트리히(67·고분자 생물물리학과) 박사가 4월26일 연세대 이과대학에서 강연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5회 한림석학강연회의 초청연사로 뷔트리히 박사를 초빙했다고 4월22일 발표했다.

스위스 연방공과대 고분자생물물리학과 교수인 뷔트리히 박사는 강연에서 <핵자기 공명 분광학을 이용한 생체단백질 삼차원 구조연구의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한림원의 외국인 회원증도 받을 예정이다.

뷔트리히 박사는 미국 버지니아주 코먼웰스대교의 존 펜 박사와 일본 시마즈제작소의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 박사와 함께 생물체 속 고분자 단백질 구조를 질량분석법과 핵자기 공명분광법을 통해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과학기술한림원은 현재 종신회원 204명, 정회원 263명, 원로회원 187명, 준회원 52명, 명예회원 4명과 뷔트리히 박사 등 3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62명의 외국인 회원을 두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25>